

단순부사의 형용사 분석

윤재학
(경희대학교)

Yoon, Jae-Hak. 2009. An Adjectival Analysis of Flat Adverb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4). 99-123. As a case of the more general loss of affixes in English,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for speakers to use flat adverbs in place of *-ly* adverbs. Taking a close look at data from flat adverbs such as *quick* in a sentence *Come here quick*, this paper motivates an adjectival analysis of flat adverbs. It is shown that flat adverbs pose unyielding difficulties to the 'standard' adverbial analysis and lead to inconsistency in category classification, as they behave more like adjectives than adverbs. An answer is sought in a radically different analysis, under which these flat adverbs are treated like predicative adjectives and subcategorized for by the preceding verb.

Key Words: 단순부사(flat adverb), 묘사 형용사, 조건 형용사절, *-ly* 부사, 비전형적 형용사

1. 머리말

일찍이 1956년 Elvis Presley는 "Love Me Tender, Love Me True"를 노래했고, 최근 들어 2007년 George W. Bush는 미네소타 다리 붕괴 현장에서 아래의 문장이 포함된 연설로 상실감에 빠진 주민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1) We want to get this bridge rebuilt as quick as possible.

그러나 이 연설의 장소는 또 하나의 상실, 즉 언어적 상실이 진행되는 현장이기도 하였다. Elvis의 경우 *tenderly, truly* 대신에 *tender, true*를 썼고, Bush 대통령은 *quickly* 대신에 *quick*을 사용함으로써 부사 형태의 상실이 발생한 것이다.

본 논문은 전통적으로 부사가 쓰이던 위치에 부사 형태가 아닌 형용사 형태가 나타나서

동사를 수식하는 구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자면, 아래 나열된 (2)-(5) 예문 중에서 (b) 유형의 문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a. Ted will pay dearly for his mistake.
 b. Ted will pay dear for his mistake.
- (3) a. Come here quickly.
 b. Come here quick.
- (4) a. The moon was shining brightly.
 b. The moon was shining bright.
- (5) a. Hold it closely to you.
 b. Hold it close to you.

위 예문에서는 (a) 문장 유형과 같이 부사 형태가 쓰여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b) 문장 유형처럼 형용사 형태도 허용된다는 특성을 보여 준다.

위의 문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형태적 차이만 존재할 뿐, 부사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uirk et al 1985; Huddleston & Pullum 2002; Wardhaugh 1995).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위의 변화, 즉 부사 형태에서 형용사 형태가 허용되는 변화는 부사의 단순한 형태적 변화로 파악되는 것이다. 즉, 주어진 부사가 전통적인 *-ly* 형태에서 *-ly* 형태 없이도 부사적으로 기능하는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필자는 위의 변화를 단순한 어휘, 형태적 변화가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통사적 변화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한 분석이라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소위 '형용사 형태'가 쓰인 경우 실제 범주 상으로도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며, 변화가 발생하는 장소는 부사 형태가 아니라 동사의 하위범주명세 단계라는 주장이다.

2. 부사 형태, 형용사 형태

부사 범주는 의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형태적으로는 범주 파악이 가장 쉬운 경우가 또한 부사이다. 바로 형용사와 부사는 형태적으로 *-ly*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래 (6)과 같이 형용사에 *-ly*가 접사로 추가되어 부사가 되는 경우이다.

- (6) a. beautiful, quick, slow, nice, humble, mortal
 b. beautifully, quickly, slowly, nicely, humbly, mortally

물론 형용사이면서도 *-ly* 형태를 취하는 (7)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7a)와 같이 어간이 대다수 명사인 경우이며, 극히 일부이긴 하나 (7b)처럼 형용사 어간을 취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 (7) a. friendly, kingly, cowardly, manly, fatherly, worldly
b. lively, kindly, goodly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는 부사범주를 표시하는 특징적 접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형용사 및 부사의 특징적 차이로서 받아 들여졌던 접미사 *-ly*의 존재 여부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의 예문 (2)-(5)는 설명이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이 부사 형태와 형용사 형태가 공통으로 쓰이는 현상은 문장내의 수식관계에서 동사 범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에는 형용사 형태가 나타날 수 없다.

- (8) a. They left the town finally.
b. *They left the town final.
(9) a. She opened the envelope carefully.
b. * She opened the envelope careful.

또한 같은 동사라도 수식어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허용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수식어가 동사 뒤에 나타나는 경우, 위의 예문 (2)과 같이 *dear*와 *dearly* 둘 다 허용됨을 보았다. 그러나 동사 앞에 위치한 경우 아래 예문과 같이 부사형태만 허용이 된다.

- (10) a. Ted will dearly pay for his mistake.
b. *Ted will dear pay for his mistake.
(11) a. John quickly went there.
b. *John quick went there.

구체적으로 (i) 어떤 부사가, (ii) 어떤 통사적 환경에서 형용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이기도 하나, 이에 대한 검토는 차후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위에 나타난 경우에 대한 형용사 형태의 이론적 처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3. 기존의 분석: 부사의 두 가지 형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의 문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형태적인 차이는 인정하지만, 통사적으로는 부사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uirk et al 1985; Huddleston & Pullum 2002).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위의 변화, 즉 부사 형태에서 형용사 형태가 허용되는 변화는 부사의 단순한 형태적 변화로 파악되는 것이다. 즉, 주어진 부사가 전통적인 *-ly* 형태에서 *-ly* 형태 없이도 부사적으로 기능하는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Huddleston & Pullum(2002:568)은 아래 (12)와 같은 문장에서 *deep*과 *wrong*을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부사 분석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 (12) a. It cut deep into his flesh.
b. He guessed wrong.

Wardhaugh(1995)도 위와 마찬가지로 부사분석을 하고 있으나, 형태변화의 방향에 대한 견해는 달리고 있다. 그는 역사적으로 *-ly* 형태가 없는 소위 단순부사(flat adverb)가 16세기에서부터 존재하였고, 접미사 *-ly*가 이러한 단순부사에까지 확장되어 결합된 과도 일반화(overgeneralization)의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찰된 현상이 실제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Webster's Dictionary of English Usage(WDEU)*와 같은 용례 사전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적 편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래 예문 (13)과 같이 현재에는 쓰이지 않는 단순부사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 (13) a. ... commanding him *incontinent* to avoid out of his realm and to make no war - Lord Berners, translation of *Froissart's Chronicles*, 1523
b. ... I was *horrid* angry, and would not go - Samuel Pepys, diary, 29 May 1667
c. ... the weather was so *violent* hot - Daniel Defoe, *Robinson Crusoe*, 1719
d. ... the five ladies were *monstrous* fine - Jonathan Swift, *Journal to Stella*, 6 Feb. 1712
e. ... I will not be *extreme* bitter - William Wycherly, *The Country Wife*, 1675

WDEU는 (14)와 같이 현재에도 통용되는 *slow*와 *quick*의 경우도 소개하고 있다.

- (14) a. The latter *quick* up flew, and kickt the beam - *Paradise Lost*, 1667
 b. ... You too learn so *quick* ... - Sinclair Lewis, *Babbitt*, 1922
 c. ... but, O, methinks, how *slow* this old moon wanes - Shakespeare, *Midsummer Night's Dream*, 1596
 d. I pray you have a continent forbearance till the speed of his rage goes *slower* - Shakespeare, *King Lear*, 1606

물론, 일부의 경우 원래에 *-ly* 없는 단순부사에 추가로 *-ly*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 사실로서 검증된 내용이다. 그러나 위의 설명만으로는 *-ly* 형태 자체가 없는 *good*과 *well*의 경우에 부사 형태인 *well*에 대신하여 *good*이 쓰이는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근 들어 (15)와 같이 역사적으로 *-ly* 형태로 이전에 쓰이던 부사가 광고 문구 등에서 실제로 *-ly*가 없이 쓰이는 경우 등 일반적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 (15) a. Think different.
 b. Eat healthy.

마찬가지로 어원학자 등 특별한 학문적 사전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화자들은 Wardhaugh나 WDEU와 달리 현재의 변화가 *-ly* 형태가 소멸되어 가는 변화로 감지하고 있고, 일부의 화자는 이러한 언어 변화를 채택하여 단순 부사의 형태의 사용을 확산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래 (16)은 이러한 변화를 의식하고 있는 일반 화자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 (16) a. www.grammarphobia.com 게시물

What's happening to adverbs? Is the *ly* going to disappear completely from our language? I'm thinking particularly of *slow* and *slowly*.

b. By Jan Freeman, September 17, 2006 *Boston Globe*

"A PAL OF MINE worries that the adverb is in decline," wrote John Hildebidle of Cambridge last week, citing usages like "have your child eat healthy" and "fly direct from Boston to Timbuktu" as signs of adverbial erosion. "Is the Noble Adverb passé, defended only by those dauntless pedants who are still battling the split infinitive?" he asked.

Ah yes, the death of the adverb—we've heard those rumors before, and we've all seen the troubling symptoms: Our friends say "I'm

doing good," sportscasters say "they played excellent," Apple tells us to "Think Different."

특정 주제의 학문적 논의에 있어서 일반 화자들의 인식을 전문가의 의견에 우선하여 반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본 주제에 대해 일반 화자들의 인식이 다소나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어원학자나 용례사전의 경우 현재 시점의 용례 보다는 수 십년 이전의 표준적 혹은 규범적 사용에 국한한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는 특정 형태들의 사용 정도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시점의 언어현상에 관한 (분석적이 아닌) 관찰적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일반 화자의 직관에 일정부분 의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ly* 없는 단순부사의 사용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순부사(*flat adverbs*)의 사용:

- (17) a. 16세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거나 *-ly* 접미사의 도입으로 소멸되어 가는 과정
 b. 과거에는 사용되었으나, 도중에 *-ly* 접미사의 도입으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겪다가, 현재는 다시 다수의 부사로 확산되는 변화의 과정

본 논문에서는 일단 *-ly* 형태에서 단순부사의 형태로의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17b)의 견해를 채택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인 접미사의 상실과 궤를 같이 하는 영어의 변화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겠다. 즉, 단순부사에서 *-ly* 부사로의 잠시 동안의 반작용 시기가 지나고 다시 과거의 변화가 확산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논의과정과 이에 따른 결론은 변화의 방향에 근거하기보다는 공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상에 대한 현재적 설명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방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 변화 과정이 반대방향이라 하더라도 도출된 결론은 현 시점에서 동일하게 유효하리라 판단된다.

3.1 의미, 기능적 대조

위의 변화를 형태적 변화로 보는 데에는 다른 요인보다도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 이미 정립된 개념적, 기능적 대조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배하는 소위 '일부' 사례를 기반으로 다른 분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저항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된다.

3.1.1 형용사와 부사의 의미특성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특징이나 자질을 표현하는 어휘" (Crystal 1995:221), "명사나 대명사가 지칭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특질을 묘사하는 어휘"(Carter & McCarthy 2006:438)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Carter & McCarthy(2006)가 아래 예문에서 이탤릭체로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가 밑줄 친 명사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특질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

- (18) a. It's a nice room.
 b. The service was awful.
 c. Her father is German.
 d. She's beautiful.

이에 반해 부사의 의미특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법서에는 한 마디로 요약하지는 않고,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서술하는 정도이다 (Huddleston 1984:330; Crystal 1995:211; Carter & McCarthy 2006:453). 굳이 의미유형을 파악하자면 아래 (19)의 예처럼 다양한 부사범주의 의미를 나열한 것을 들 수 있겠다 (Carter & McCarthy 2006:456).

(19) manner	Those flowers grow <i>quickly</i> , don't they?
place	Many <i>locally</i> owned bookshops are cutting prices.
time	Her father died recently.
duration	No, I'm not staying there <i>permanently</i> .
frequency	I <i>often</i> go and see them.
degree	I was <i>greatly</i> relieved when we were finally rid of her.
focusing	<i>Just</i> ice cream please.
modal	She <i>most probably</i> thinks I'm joking.
evaluative	I <i>stupidly</i> forgot to mention the meeting to him.
viewpoint	I <i>personally</i> don't think you would hat it, Elaine.
linking	She wanted to study but there wasn't any provision. <i>However</i> , her younger sisters are now studying.

1) 물론 엄격히 말하면 명사나 대명사가 중심어로 이루어진 명사구가 지칭하는 대상에 관한 서술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1.2 기능적 차이

기능적 측면에서 비교할 때, 형용사와 부사는 각각 명사 수식과 동사 수식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아래 (20)은 이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예문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술로서 부사 *quickly*는 동사 *left*를 수식하고, 형용사 *quick*은 명사 기반인 주어 *John's leaving*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다.

- (20) a. John left *quickly*.
 b. John's leaving was *quick*.

영어의 경우 어원적으로도 형용사(adjective)와 부사(adverb) 자체가 'ad + ject', 'ad + verb'로서 형용사는 주어(subject)의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부가어로 파악되고, 부사는 동사의 부가어로 파악된 것이다. 물론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의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범주이며, 부사의 다양한 기능 중에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 때,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영어 명칭은 이와 같은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용사는 명사/대명사를 수식하고, 부사가 동사를 수식한다는 것은 기능적 분화가 매우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이렇게 주장하는 문법서는 거의 없다. 최소한 아래 (21), (22)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식관계는 언급이 된다.

형용사: 명사/대명사 수식

- (21) a. Only rich people can afford a flat in *central* London.
 b. They were always *popular* with the rest of the team.
 c. I made him *nervous* before the interview.

부사: 동사/형용사/부사 수식

- (22) a. She blushed *furiously*.
 b. It was *perfectly* acceptable.
 c. She'd worked *extremely* hard.

예문 (22)도 상당한 단순화를 내포하는 있으며, 위 (19)의 수식관계를 통해서 보았듯이, 부사는 유형별로 다양한 수식관계를 나타내어 양태부사와 시간/장소부사가 대표적으로 동사를 수식하고, 정도부사는 형용사와 다른 양태부사를 수식하며, 문장부사와 접속부사는 문장 단위 수식, 문장 간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수식관계가 매우 다양하긴 하나,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상보적 수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3.2 분포에 따른 범주 분류

동사론의 전통에서 범주구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존의 분류방식인 개념적, 의미적 정의의 문제점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결함을 익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언어학 입문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동사론 기초과정에 잘못된 유형분류로서 소개가 된다. 예를 들어 Huddleston(1984:90-92)은 Curme(1935)의 전통적인 품사 정의를 소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Curme(1935), Crystal(2006)을 위시한 대부분의 전통 문법서는 명사는 사람, 장소,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휘로,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 (23)과 (24)에서 Curme(1935)과 Crystal(2006)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맥락은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Curme(1935:1,63)

- a. "A noun is a word used as the name of a living being or lifeless thing."
- b. "The verb is that part of speech that predicates, assists in predications, asks question, or expresses a command."

(24) Crystal(2006:297,301)

- a. "They[nouns] denote classes and categories of things in the world, including people, animals, inanimate things, places, events, qualities and states."
- b. "Typically, verbs denote actions, events, processes and states."

두 문법서의 발행 간격이 70년에 이르고, 이에 따라 Crystal의 정의에는 명사의 경우 "사건, 특질, 상태"를 가리키는 대상에 추가하였고, 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typically]"라는 수식어를 덧붙였다.

Huddleston(1984:92)의 예를 빌어 위와 같은 구분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자면, (25a)의 동작을 표시하는 *destroyed*를 동사로 분류하면서, (25b)의 *destruction*을 명사로 분류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25) a. They destroyed the residue unnecessarily.

- b. Their destruction of the residue was unnecessary.

Crystal의 수정된 정의에 따르면 동사는 물론 명사도 사건을 지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정함으로써 명사와 동사의 의미적, 개념적 정의 자체가 범

주구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명사와 동사에 관한 의미, 개념적 정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이에 기초한 형용사와 부사의 정의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함의한다. 위의 예문 (25)에서 부사 *unnecessarily*와 형용사 *unnecessary*가 의미적으로 수식하는 대상은 둘 다 '파괴'라는 사건이다. 같은 유형이지만 좀 더 단순한 예로서 위에서 언급된 (20)을 보자.

- (20) a. John left *quickly*.
 b. John's leaving was *quick*.

이와 같은 문장은 Davidson(1967)의 사건의미론 기술의 전통에서는 똑 같이 (26)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 개념에 기초한 정의는 범주 구분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26) $\exists e[\text{leaving}(j,e) \ \& \ \text{quick}(e)]$

의미, 개념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제시되는 것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통사적 분포유형에 기초한 범주 구분이다. 이에 따라 *be*동사 다음에 위치하여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을 형용사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동사구 뒤에 나타나서 동사구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부사적 특성으로 파악한다면, 위에서 제기된 (20), (25), (26)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식어(modifier) 기능을 하는 형용사, 명사의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게 되어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나치게 위치에 국한하여 규정하는 경우 *a boy actor*와 *a great actor*의 비교에서 *boy*와 *great* 둘 다 같은 범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체적인 틀을 떠나, 구체적으로 형용사와 부사 구분에 적용된 기존 분석은, 문장에서의 필수요소로서의 기능에 근거를 두는 것이 거의 관행적이다. 예를 들어 Quirk et al.(1985)의 경우, 문장에서 동사구에 나타나는 형용사는 보충어(complement)로 사용될 수 있으나, 부사는 부가어(adjunct)의 기능에 국한되는 것으로 대별된다. 아래 예문 (27)에서 형용사들은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의 기능을 하며, 생략될 경우 비문이 되거나 동사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 (27) a. He grew #(angry).
 b. She looked *(happy).
 c. He made the children #(happy).

반면에 위에서 살펴본 전형적인 부사들은 (28)처럼 의미와 문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생략이 가능하다.

- (28) a. They destroyed the residue (unnecessarily).
 b. John left (quickly).

이런 생략가능성의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형용사 형태의 어휘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형용사 범주보다는 부사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아래 재 나열한 (29)의 문장들에서 괄호 안의 어휘들은 문장의 문법성이나 동사의 어휘적 변화 없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29) a. Ted will pay (dear) for his mistake.
 b. Come here (quick).
 c. Hold it (close) to you.

기존의 관행에 따라 도출된 이와 같은 결론은 부사 분석이 재론의 여지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론적 문제점이 있으며 주어진 자료를 이에 따라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밝히게 될 것이다.

4. 부사 분석의 문제점

본 절에서는 관행적인 범주구분이 전형적인 부사에 근거하지만, 사실은 모순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자료에 비전형적인 형용사 및 부사의 경우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1 범주 설정의 전제

범주구분의 역사는 통사론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플라톤이 *Cratylus*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명사부와 서술부로 구분하였다. 후에 Dionysius Thrax가 *Technē Grammatikē*에서 문장의 주요 8품사를 구분하는 등, 범주설정 역사는 최소한 2000년에 달한다.

물론 범주구분은 구분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무엇을 위한 분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범언어적 공통점을 추구하는 차원으로서 특정 범주의 존재와

특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언어현상에 대한 설명력 확보 차원의 범주 구분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목적에 따라 범주 설정의 방식이 의미적인 방식, 통사적인 방식, 혹은 혼합적인 방식 등으로 정의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언어현상에 대한 서술적 장치로서 범주를 인식하고, 통사에 기반한 정의를 제안할 것이다.

4.2 비전형적 형용사

앞 절에서 살펴본 동사구에 나타나는 형용사의 경우 보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생략될 경우 비문이 되거나 의도했던 동사의 의미유지가 불가능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못지 않게 이러한 유형을 따르지 않는 형용사 구문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 (30) 유형의 예문에서는 통상 형용사로 분류되는 *young*과 *drunk*류의 형용사는 주절의 동사의 의미에 변화없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 (30) a. They married (young).
 b. He came in (drunk).
 c. He came home (miserable).

아래 (31)의 예문 유형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사 의미에 영향없이 생략이 가능한 형용사 구문이다. 이들 예문에서는 동사와 후행 형용사와의 관계가 밀접하여 구문이 위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 (31) a. The fire is burning (low).
 b. The sun shone (bright).
 c. The door banged (shut).

주절의 본동사가 1차적 서술(primary predication)을 담당한다고 볼 때, 2차적 서술(secondary predication)의 기능을 하는 형용사로서 아래 (32)의 형용사 유형을 Baker(2003:172)는 묘사 형용사(depictive adjective)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들도 위와 마찬가지로 주절 동사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형용사 범주에 속한다.

- (32) a. He took a swim naked.
 b. She gave us our coffee black.
 c. They sent him home sober.

이들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 혹은 목적어이다. 위 구문이 타동사 구문이라는 점에서 자동사 구문인 (30)의 예와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Baker는 이들을 (30) 구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형용사가 나타나서 주절이 서술하는 행위에 대한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서술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다음의 경우 부사어 기능을 하나,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처리되고 있다. Quirk et al.(1985:427)은 이들에 대하여 조건 형용사절(contingent adjective clause)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 (33) a. They are happier free.
 b. He will be no use dead.
 c. He sells them new.
 d. I can't drink it hot.
 e. To make good tomato chutney, you should pick the tomatoes green.
 f. The tomatoes should be picked green.

이 유형은 통사적으로는 위의 묘사 형용사의 경우와 유사하나 의미적으로는 구분이 된다. 위 (32)의 예문에 나타나는 묘사 형용사의 경우 전체 문장이 서술하는 사건의 참가자에 대한 부가적인, 2차적인 기술이다. 반면에 예문 (33)의 조건 형용사절은 총칭문의 의미유형으로 주절 사건의 조건이 되는, 부사절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로서 (32b)와 (33b)의 의미차이를 다소 비형식적인 표기로 비교하자면 아래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4) a. She gave us our coffee black.
 => $\exists x[\text{give}(\text{she}, \text{us}, x) \ \& \ \text{coffee}(x) \ \& \ \text{black}(x)]$
 b. He will be no use dead.
 => $[\text{dead}(x) \rightarrow \sim \text{useful}(x)]$

각각의 예문에서 해당 형용사가 문장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대략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34a)는 커피 x라는 개체에 대한 부가적인 서술이며, (34b)에서는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사 "->"을 포함하는 주절의 서술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33)의 경우는 기능적으로 아래 (35)에 표시한 바와 같이 시간 및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생략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35) a. They are happier when free.

b. He will be no use if dead.

위에서 나열한 비전형적인 형용사들의 예를 살펴보면, 앞 절 등에서 형용사와 부사의 범주구분에 중요한 척도로 제안되고 사용되었던 기능성과 수식관계는 상당 부분 중요도가 무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에서 보이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요소로서 생략 불가능성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조건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어휘에 대해서도 부사가 아닌 형용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4.3 Good과 Well의 예

아래 (3)의 예문과 같이 부사 형태와 형용사 형태가 같이 쓰이는 구문에 대해서 Quirk et al.(1985)을 비롯한 다수의 분석에서는 전통적으로 *-ly* 접미사를 동반하던 부사가 *-ly* 접미사 없는 단순부사를 사용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3) a. Come here quickly.

b. Come here quick.

반면에 Wardhaugh(1995)를 위시한 일부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ly* 형태가 없던 많은 부사들이 *-ly* 형태를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두 가지 분석은 변화의 방향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뿐 결과적으로 (3b)의 *quick*을 부사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시적 관점에서 동일한 분석이다.

우선, Quirk et al. 등의 분석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단순부사를 사용하는 변화'로 미루어 단순성에 근거한 변화로 추정이 가능하다.²⁾ Wardhaugh의 경우는 유추(analogy)에 의한 어휘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아래 예문 (36)과 같은 문장의 설명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36) a. John was educated well.

b. John was educated good.

우선 *well*과 *good*은 표면 형태적으로 공유하는 어근이 없으므로 단순형태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여 Quirk et al. 방식의 설명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well*은 *-ly* 형태의 부사가 아니므로, Wardhaugh 방식으로 부사 *well*과 부사 *good*이 공존한다고 설명하는 하는 것에도

2) 물론, 이들의 분석을 역사적 변화에 관심을 가진 분석이 아니라 주어진 시점의 현상에 대한 분석이므로 변화의 원인분석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무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설명 대신 (b)를 사용하는 화자의 문법에는 분명히 형용사 *good*이 동사 *educated*를 수식하는 규칙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다.

4.4 위치적 변이

부사 분석이 봉착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위의 예문 (10)과 (11)에 나타난 위치에 따른 허용편차에 관련된 것이다. 아래에 재 나열된 (2)와 (10)을 보자.

- (2) a. Ted will pay dearly for the mistake.
 b. Ted will pay dear for the mistake.
 (10) a. Ted will dearly pay for the mistake.
 b. *Ted will dear pay for the mistake.

부사분석에 따르면 (2a)의 *dear*와 (2b) *dearly*는 둘 다 부사이다. 반면, 이들 어휘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인 (10a)와 (10b)에서는 문법성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10b)는 비문으로서 단순부사 형태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위치에 따른 문법성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2a, b)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사분석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노선에서는 (10a)와 (10b)의 *dearly*와 *dear*를 동일하게 부사로 파악하나, (10b)는 동사 *pay*의 하위범주화 위배(subcategorization violation)로 비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pay*와 같은 동사는 부사가 뒤에 나타날 때는 (2)와 같이 *dearly* 형태와 *dear* 형태를 둘 다 허용하지만, 이들 부사가 동사를 선행할 때는 (10)과 같이 *dearly* 형태만 허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래 (37)과 같은 식으로 하위범주화를 하여 Adv[+ly]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 (37) pay [Adv[+ly] ___ Adj/Adv [for NP]]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하위범주화는 동일 의미와 기능을 가진 어휘 중에서 특정 형태로 이루어진 어휘만 허용하게 함으로써, 하위범주화되는 어휘의 의미기능뿐 아니라 형태에까지 접근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하위범주화의 경계를 어휘형태론 내부 깊숙이까지 확장하게 하여 통사론의 제한성을 지나치게 완화하게 하는 것으로, 통사론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방식의 설명이다.

이론적 문제 이외에도, 이러한 설명은 *well*과 *good*이 보여주는 *-ly* 형태가 아닌 부사의 대조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 (36)에서 관찰한 대로 *well*과

*good*이 동시에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38)과 같이 동일한 위치적 편차가 나타난다.

- (38) a. John has well behaved since the probation.
 b. *John has good behaved since the probation.

이 경우에는 위에서 가능했던 *-ly* 형태의 하위범주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안으로서는, (2a, b)와 같이 동사 뒤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둘 다 부사지만, (10a, b)와 같이 동사 앞에 나타날 경우에는 *dearly*는 부사이고 *dear*는 형용사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 방법이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동일 기능을 담당하는, 동일 형태의 어휘에 대해서, 특정 위치에서만 부사이고 다른 위치에서는 형용사라는 분석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짐작하는 대로 이러한 분석은 언어학이 추구하는 이론적 분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므로 나온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많은 경우 로마의 수사학자 Quintilian이 "관습은 언어의 가장 확실한 애인이다"라고 말한 대로 관성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언어사용에 관한 진리를 표출한 것인데, 언어분석은 이와는 달라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행은 기존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론적 발전에 대한 커다란 함정이 될 수가 있다.

5. 형용사 분석

본 절에서는 위 4절에서 지적된 위치적 편차를 비롯한 부사분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형용사 분석을 제시한다. 형용사 분석으로 부사분석이 봉착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 살핀다. 반면에 형용사 분석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실제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5.1 위치적 변이의 해소

위에서 부사분석의 가장 큰 난제로서 위치에 따른 문법성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즉, 동일 기능을 하는 동일 형태의 어휘에 대해서 특정 위치에서는 형용사, 여타 위치에서는 부사로 분석해야 하는 이론적 난맥상을 노출시켰다.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해결 방안은 형용사 분석이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2)와 (10)에 나타나는 *dearly*는 모두 부사이고, *dear*는 모두 형용사이다. 위에서 관찰된 위치적 변이에 대해서는 다음 (39)와 같이 동사 *pay*가 허용/요구하는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

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 (39) a. pay [Adv ___ Adj/Adv [for NP]]
 b. pay [___ Adj [for NP]]

(39a)에 따르면 동사 *pay*는 동사에 후행하는 형용사와 부사를 둘 다 허용하지만, 선행하는 경우 부사만 허용하도록 하위범주화 되어 있다. 일단 전형적인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를 존중하고, 개별 동사의 하위범주화의 결과로 일부 형용사가 부사와 같이 일정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부사에 대해서 동사가 하위범주화를 설정한다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이론적 전통에서는 (39b)와 같이 형용사만 하위범주화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통사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위치적 변이는 앞에서 소개된 예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같은 형용사라도 수식을 받는 동사와 형용사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허용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direct*의 경우, (40)과 같이 동사 *go*에 대해서는 후행하여 수식이 가능하나, 또 다른 동사 *live*와 *affect*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 (40) a. We went direct/directly to New York.
 b. It won't affect us *direct/directly.
 c. We live *direct/directly opposite the park.

마찬가지로 (4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low*의 경우 동사 *go*에 후행 수식이 가능하나, *improve*의 수식어로는 나타날 수 없으며, 동사 *go*의 경우라도 선행 수식은 불가능하다.

- (41) a. Don't go so slow/slowly.
 b. It improved *slow/slowly.
 c. They *slow/slowly went away.

이렇듯 매우 다양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해당 어휘가 변화과정에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동사의 하위범주화를 통한 형용사 분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다양한 대조에 대한 설명이 매우 간단히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또한 형용사가 동사에 선행하는 경우와 후행하는 경우의 위치적 편차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부사에 비해 나타나는 위치에 제한성이 많다는 맥락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사적 변화는 형용사가 동사에 후행하는 경우에 국

한하고 있으며, 변화의 정도가 현재는 다수 화자의 특정 동사군, 혹은 일부 화자의 다수의 동사군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의 진행이 향후 이 수준에서 머물다 소멸될 지, 모든 동사로 파급될 지, 혹은 동사에 선행하는 형용사에까지 진행함으로써 형용사와 부사의 경계가 사라질 지는 대부분의 언어의 역사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의 글에 표현되어 교열을 거쳐 대통령의 연설에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통사변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5.2 형태적 특성 존중

사실 5.1에서 설명한 위치적 변이의 해소가 형용사 분석의 장점을 매우 극적으로 부사 분석과 대조를 이뤄서 보여주는 논거로서 제시되었으나, 이 보다 더욱 기본적인 논거는 어휘의 형태적 특성을 존중해야하는 이론적 바탕에 있다. 다시 말해, 확실한 반대논거가 없다면 당연히 형태적인 특성을 존중하여 범주 분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예문에서 나타나는 *dearly*와 *dear*는 일반적으로 부사와 형용사로 각각 분류된다. 따라서 분명한 논거가 없다면 위에 나타난 *dear*의 경우 형용사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논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은 *dear*류의 어휘를 부사로 분류하는 진영에 있게 된다.

범주구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면서도 가장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형태적 특성의 우위성이다. 이런 점에서 Huddleston(1984: 333)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르면, 아래 예문 (42)의 *fast*와 *hard*가 (43)의 예와 비교하여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근거는, 아마 유일한 근거는, 적은 수의 단어만이 같은 형태로 두 구문에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인정하였다.

(42) a. He drove fast.

b. She tried hard.

(43) a. a fast driver

b. a hard worker

즉, 대부분의 경우 아래 (44)와 같은 유형을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부사로 분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44) a. He drove carefully.

b. a careful driver

따라서 이러한 동일형태의 사용이 진행되고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라면 당연히 이를 반영

한 형용사 분석이 이론적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5.3 형용사 분석의 문제 소지

형용사 분석의 문제는 부사 분석의 논거에 대한 충분한 반박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형용사 분석으로 얻은 장점들이 부사 분석의 논거로 제시된 내용들을 압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형용사 분석의 장점이 부사 분석의 장점을 충분히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사 분석의 논거들의 문제점을 간단히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부사분석에 대한 논거로서 크게 두 가지 관찰이 제시되었다. 먼저, 형용사와 부사의 의미/기능적 차이점이 지적되었다. 대략적 의미로서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의 특질을 표현하는 어휘로 구별되는 반면, 부사는 양태, 장소, 시간 등을 표현하는 어휘로 규정된다. 기능적으로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구별되고 있다. 두 번째 논거로서, 문장에서의 상대적 위치 등을 포함한 분포에 따른 차이점이 제시되었다. 특히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성의 관점에서 비교되었다. 즉, 서술부에 나타나는 경우 부사는 의미와 문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략이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문장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작용하여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³⁾

5.3.1 논거 1: 의미/기능적 구분

형용사와 부사의 의미/기능적 구분은 위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분명한 구별을 가지지 못한다. 예문 (20)을 활용하여 간단히 재차 설명하도록 한다.

(20) 가. John left *quickly*.

나. John's leaving was *quick*.

(20)에서 부사 *quickly*와 형용사 *quick*은 각각 동사 *left*와 명사구 *John's leaving*을 수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장은 Davidson(1972)의 사건의미론 기술에서는 똑 같이 (26)과 같은 진리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서, 의미와 기능에 기초한 정의는 형용사와 부사 구분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26) $\exists e[\text{leaving}(j,e) \ \& \ \text{quick}(e)]$

실상 기능적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20)과 (26)에서 관찰되는 것은 이들이 매우 표면적인 통

3) 사실 두 범주의 구분은 매우 이상화된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되었고,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경우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4.2에서 밝힌 바 있다.

사적 기능에 차이를 표시하고 있으나 사건 수식이라는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면적, 통사적 기능의 차이는 분포적 차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사실 개념적/기능적 차이 자체는 논리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범주로서 마땅히 중요한 분류 요소로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 혹은 언어의 일정 구문에 따라 그러한 차이를 형용사/부사라는 범주로 확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논리적 필연성은 없어 보인다. 자연언어에서 의미 기능과 통사 기능이 일대 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주로 부사로 분석되는 예문 (45)의 밑줄친 어휘에 대응하는 영어 어휘가 형용사와 부사로 대조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한국어 구문을 재분석하여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형용사 구문과 부사구문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한 분석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 (45) a. 책을 감명깊게 읽었다.
 b. 자동차를 싸게 샀다.
 c. 차를 깨끗이 닦았다.
 d. 옛 애인을 깨끗이 잊었다.
- (46) a. #John read the book impressively.
 b. #John bought the car cheaply.
 c. #John washed his car cleanly.
 d. John forgot his girlfriend completely.

한국어와 영어가 해당구문에서 일치하지 않고, (a), (b), (c)의 경우 각각 묘사, 묘사, 결과구문의 형태를 사용하고, (d)의 경우에만 부사구문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어의 경우에 부사 분석보다 형용사에 기반한 결과구문으로 분석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47) 가. John found the book impressive.
 나. John bought the car cheap.
 다. John washed his car clean.
 라. #John forgot his girlfriend complete.

다시 말해, 의미/기능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형용사와 부사는 언어에 따라, 동일언어라도 구문에 따라 통합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하는 등, 다르게 분석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영어의 경우에도 형용사와 부사가 매우 대조적인 범주는 아니다. 오히려 Baker(2003)가 주장하듯이 두 범주는 공통성이 매우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범주

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Baker의 논거 중 다섯 항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부사형 접사로 쓰이는 *-ly*가 *worldly*, *manly*, *daily*와 같은 단어에서는 형용사형 접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ly*와 결합한 결과로서 공통적인 범주의 단어로 생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Emonds(1976)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형용사와 부사는 많은 통사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사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정도 표현 구문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48) a. Chris was as quiet as a mouse.
 b. ... so quiet that no one noticed.
 c. ... too quiet to be heard.
 d. ... more/less quiet than a mouse.
 e. ... quiet enough to not disturb us.
 f. How quiet was Chris when he entered the house?
- (49) a. Chris entered the house as quietly as a mouse.
 b. ... so quietly that no one noticed.
 c. ... too quietly to be heard.
 d. ... more/less quietly than a mouse.
 e. ... quietly enough to not disturb us.
 f. How quietly did Chris enter the house?

셋째, 형용사와 부사는 공통적으로 수식받는 단어(modified head) 앞에 나타날 때 보어를 취할 수 없다 (Jackendoff 1977):

- (50) a. John is a proud (*of his daughter) man.
 b. John proudly (*of his daughter) showed everyone his photo album.

넷째, 아래 (51)과 (5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동사구 및 형용사구에 나타나는 부사의 기능은 의미적으로 동일한 파생 명사구에서 형용사의 기능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 (51) a. Italy *brutally* invaded Albania.
 b. Chris is *extremely* shy.

- (52) a. Italy's *brutal* invasion of Albania
 b. Chris's *extreme* shyness.

다섯째, NP 통사구조에 대한 Cinque(1994)의 논의와 절 통사구조에 대한 Cinque(1999)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점 명사(head noun)에 대한 형용사의 어순과 위치는 동사에 대한 부사의 어순과 위치와 특별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Baker는 추가적으로 로망스 언어도 영어와 유사한 형용사 부사 일치현상이 부사형 접사 *-mente*와 관련하여 나타난다고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형용사와 부사는 사실 같은 기능의 통합된 범주에 속하며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5.3.2 논거 2: 분포와 생략가능성의 차이

형용사와 부사의 통사적 분포유형에 따른 차이에 관해서 이미 언급하였다. 형용사와 부사의 가장 특징적이고 실용적인 분류의 차이점은 동사구에 나타날 때 문장의 보어로서 문장의 주요성분을 담당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많은 경우 형용사는 문장의 주요성분인 주격보어 및 목적격 보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부사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범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알려진 바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분류되면서도 보어가 아닌 부가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다수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아래에 재 나열한 다음의 문장에서 밑줄 친 어휘들은 모두 형용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실상 앞에서 주어진 기준에 따르면 모두 부사로 분류되어야 마땅한 어휘들이다.

- (30) a. They married young.
 b. He came in drunk.
 c. He came home miserable.
- (32) a. He took a swim naked.
 b. She gave us our coffee black.
 c. They sent him home sober.
- (33) a. They are happier free.
 b. He will be no use dead.
 c. He sells them new.
 d. I can't drink it hot.
 e. To make good tomato chutney, you should pick the tomatoes green.
 f. The tomatoes should be picked green.

반면에 위의 형용사의 경우와 완전히 반대되는 예로서 '필수적 부사'의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사는 생략이 가능한데 다음의 예에서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결국 기능보다는 형태에 우선하여 범주를 설정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53)의 예에서 형용사 형태인 *heavy*와 *careful*이 쓰였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이들은 형용사로 분석될 것이다.

- (53) a. Economy weighed heavily on most voters' minds
 b. John worded the letter carefully.

두 번째로 분포에 따른 범주설정 문제는 통사적 변화과정에 있는 어휘에 대해서는 정의자체가 모순을 내포 있으며 지나치게 이에 의존하면 통사적 분포의 변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개념이 된다. 역사적으로 통사적 변화는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사적 변화는 분포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한다면 변화의 단계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변화과정에 있는 통사적 현상은 기존의 통사적 틀에서 설정한 요건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는 일정부분 완화하여 어휘형태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분석의 관행이다. 위에 (27)-(29)에 나타난 어휘들을 형용사로 분류한 것은 통사적 기준은 완전히 무시하고, 기 분류된 범주를 전제로 하여 형태적 요소를 주요 판단 요소로 설정한 결과이다.

6. 결론

영어 단순부사(*flat adverb*)와 *-ly* 부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형용사와 부사가 통합되는 방향의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두 범주가 통합된 유형의 언어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형용사와 부사 범주의 통합 자체는 이론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변화가 두 범주의 완전한 통합으로까지는 확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추세 자체는 엄연한 현상으로서 인정해야 하며 현재는 부분적 현상이지만 이를 반영한 통사적 규칙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형용사, 부사 동형으로 단순부사가 동사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에 이를 형용사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들이 통사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한 과정으로, 후행하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사에 선행하는 것은 부사만 가능하도록 동사의 하위범주화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이론적 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참고문헌

- Baker, M. C. (2003) *Lexical Catego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rter, R. & McCarthy, M. (2006)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A Comprehensive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inque, G. (1994) On the evidence for partial N-movement in the Romance DP. In *Paths towards Universal Grammar: studies in honor of Richard S. Kayne*. G. Cinque, J. Koster, J.-Y. Pollock, L. Rizzi, and R. Zanuttini (eds.), (pp. 85-110).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Cinque, G. (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ystal, D. (1995)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rme, G. O. (1935) *Parts of speech and accident*. Boston: Heath.
- Davidson, 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p. 81-95)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Emonds, J.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 Huddleston, R. (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uddleston, R. & Pullum, G.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kendoff, R. (1977) *X-bar 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 Wardhaugh, R. (1995) *Understanding English Grammar: A Linguistic Approach*.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Webster's Dictionary of English Usage*. (1989) Merriam Webster.

윤재학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영미어학부
 전화: (031)201-2254
 이메일: jyoona@khu.ac.kr

Received: 22 January, 2009

Revised: 12 November, 2009

Accepted: 7 December, 2009